

광주여성가족재단, 기획전시 ‘her심тан회’展

3월23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

## ‘미투’ 이후의 시대...여성작가 5인 희망의 담론

지난 2018년 서지현 김사가 폭로한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법조계에 이어 문화·예술계, 정치계까지 퍼져 사회적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미투 사건 이후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경험담들을 허심탄회하게 소통, 공유, 확장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화순·김희련·바다·손향옥·추현경 미술운동으로 그린 삶의 방향  
폭거·탄압 속 민주열사 모습 등 통해 여성들 경험담 소통·공유·확장

광주여성재단이 오는 3월23일까지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기획전시 공모 선정작 ‘her심탄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민족미술인협회 여성작가 5인이 미투 이후의 시대를 여성을 통해 형상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작가 대부분은 8~90년대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광주에서 대학미술 운동을 시작으로 진보적 미술의 삶을 탐구, 실험하며 살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우리 시대의 민초들과 ‘함께 나누어 누리를 미술’을 꿈꾸며 자신의 존재와 운명, 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 사회를 열망하는 실천적 삶과 결합하고자 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작품을 통해 나타난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전쟁, 핵, 환경 파괴 등 남성 중심 사회의 산물들에서의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자애로운 어머니상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가 하면 수많은 권력의 폭거와 탄압 속에서 자신을 내댈진 민주열사들의 신념과 열원, 당당한 여성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단순하면서도 정감 있게 표현해낸다.

김화순의 ‘하계 땀나무 아래서 평화를 공리하다’는 600년 동안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줬던 땀나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대한 가지를 펼쳐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주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세상사를 다 품어줬을 땀나무가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위기에 놓여있다.

전쟁, 핵, 환경 파괴... 남성 중심 사회의 산물들에서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김희련의 ‘꽃 오월 사람 (Flower: the Person of May)’은 광주항쟁 속 여성을 나타낸다. 염색전에 바느질로 드로잉 한 독특한 이 작품은 오월 길에 불의를 떨쳐 내며 일어난 ‘김양’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광주항쟁 당시 가부장제와 성적 차별이 여성의 삶의 공간을 지배하고 있어 오월 민주 항쟁 당시의 폭력과 성적 소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여성들은 이를 무릅쓰고 시위에 참여한다. ‘김양’은 오월항쟁을 민중 주체의 무장봉기로 발전시킨 동력의 일부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다는 다양한 조각 작업을 통해 ‘선정인-번뇌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중 세상 평등세상을 꿈꾸던 동학 농민들의 열원,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댈진 송고한 독립투사들의 열원, 한반도 통일의 열원 등을 담은 기도가 곧 그의 작업이 됐다.

손향옥의 ‘내 안의 나’는 당당한 포즈의 여성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작품은 버티고 이겨낼 힘은 내 안에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삶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겸손해지는 지금, 우리가 꿈꿨던 미래는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내는 일상의 반복이 아니었을까.

추현경은 2020년에도 멈추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의 행진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5월16일 5·18 40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인 ‘오월 시민 행진 그날 WHO’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40년 전 희생된 분들의 인형을 만들어 쓰고 급남로 거리를 행진하며 그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로 고안됐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김희련작 ‘꽃 오월사람’

바다작 ‘유관순의 선정인’▶

▼손향옥작 ‘내안의 나’



▲김화순작 ‘하계 땀나무 아래서 평화를 공리하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소통, 공유, 확장하고 건강한 미술문화 건립을 위해 영화, 인문학, 인권평화 관련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다.

진지한 예술활동으로 시대를 횡단하는 3~40대를 보낸 여성작가 5인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으로 ‘여성’을 화두로 솔직하면서도 진지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들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서 광주여성가족재단 유튜브에 공유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이기자



### 새해 첫 야간천체관측 참가하세요

국립광주과학관, 21~22일 밤하늘 관측대장 등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이 새해 첫 야간천체관측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1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밤하늘 관측대장, 별빛학교를 각각 오는 21일~22일 개최한다.

21일 개최하는 밤하늘 관측대장은 초등 3학년 이상 최대 3인이 1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천체망원경의 종류와 원리를 학습하고 직접 천체망원경을 조립 및 조작해 자유롭게 천체를 관측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22일 개최하는 별빛학교는 천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천체투영관에서 펼쳐지는 별자리 설명, 계절별 별자리 찾아보기, 국내 과학관 최대 구경의 별빛전문대 주망원경을 활용한 천문관측 등을 진행한다. /김다이기자

### “광주매일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신문 구독료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문화비 소득공제에 적용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도서 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등의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 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문구독료 공제 대상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종이 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종이신문을 취급하는 신문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웹과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다이기자

###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참여 공모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 능력 함양과 미디어 창의인재 발굴을 위한 ‘2021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자유학년제 시행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미디어교육’ 등 두 개 분야다.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은 방송 미디어분야 진로탐색을 목표로 미디어 바로보기를 위한 이론교육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습교육으로 운영되며 연간 13차시(1차시당 2시간, 총 26시간)의 교육시간이 제공된다. 또한 전교생 60명 미만 및 4개 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를 위한 캠프형 미디어교육도 9차시(총 18시간)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미디어교육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미디어교육 관련 교과 혹은 국어, 사회과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미디어교육을 16차시(총 32시간)로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beronicle@kcmf.or.kr)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시청자사업팀(062-650-0332). /김다이기자

## 코로나19 여파 광주비엔날레 또 다시 연기 검토

개막 4월1일·전체 일정 39일로 축소 등 이달 중 최종 확정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해 오는 2월 26일 개최기로 한 광주비엔날레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작품 운송, 해외작가 입국일정 등이 어렵게 되면서 연기가 불가피해 이달 내로 재단 이사

회를 열어 개막 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4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오는 2월 26일 개막 예정이었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를 오는 4월1일 연기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대신 폐막일은 작가들과의 계약기간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준비 기간이 맞물려 있어 5월9일을 유지하면서 전체 행사 일정을 72일에서 39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재단은 개막이 연기됨에 따라 관람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폐막 일정을 늦추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예술감독, 작가들과의 계약 기

간 문제 등이 얽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새 계약을 체결해야해서 연장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일정이 연기돼 전체 일정의 축소되면 관리비용 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김옥조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은 “유행 등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불가피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재단 내부적으로 연기를 검토중이지만 최종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다이기자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5-5530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5-5530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323
- 양산지국 574-3745
- 수암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암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쪽지사 061)278-0740
- 남쪽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